

강원도내 치과기공소 인력수급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동우대학 치기공과
권 순 석, 황 성 식

=Abstract=

A Study on demand and supply of dental laboratory technician in Gangwon Province.

Soon-Seog Kwon, Seong-Sig Hwang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ong-u Colleg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measures for shortage of manpower of dental technology laboratory in Gangwon province by means of examining not only the history of Gangwon association, present condition of transference of members of Gangwon association from 1990, of missing members and annual rate of participation in repair education with setting object of study into Gangwon associ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n Dental Technology Association but also the present condition of opening and closing laboratory, amount of business connection and condition of shortage of manpower and its field with setting object of study into 28 dental technology laboratories.

Results from this study are like followings :

First, Gagnwo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84 as the eleventh in the line of the board, reorganization of board is conducted 8 times up to the eighth in the line of the board in 2001. board is composed of 16 persons including president and operated its term as 3 years.

Second, a number of representative and ordinary member of Gangwon association has increased gradually from 1992 to 2001. in aspect of annual rate of participation in repair education, representative's is more higher than ordinary member's overall. the worst rate of whole members' is shown as 47.9% and the

* 본 논문은 2002년도 동우대학 학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 · 성 명 : 권 순 석 · 전 화 : 033)639-0662 · E-mail : kss37@duc.ac.kr
저자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244번지 동우대학 치기공과

its best rate is shown as 92.0%. in addition, 70~80% rate of participation into repair education is shown most frequently as 8 times of whole 20 times from 1992 to 2001.

Third, 29 authorized dental technology laboratories have registered in Gangwon association until march 2002 within 9 cities and counties. in consideration of establishment location. Gangneung city has most amount as 7 laboratories(24.1%), Wonju city has 5(17.2%), Samcheok city and Sokcho city, each has 4(13.8%), Chuncheon city has 3(10.3%), Donghae city and Taebak city, each has 2(6.9%) and Yangyang and Yongwol county, each has 1(3.4%)

Fourth, amount of work personnel of laboratory in Gangwon province is 1~10 persons as the maximum value. 23 laboratories(82.1%) have their own work personnel as amount of 5 and below. in aspect of main business, most of laboratories focus on the Porcelain and Crown. and 16 laboratories(57.1%) have their own expensive equipments such as Milling. its also suggests that 16 laboratories(57.1%) suffer their shortage of working personnel. specifically, 6 laboratories(21.4%) suffer the highest shortage especially in Denture field,

Fifth, whole number of Gangwon association is up to 101 members (28 representatives and 73 ordinary members) until December 31th 2001. amount of immune from repair education of Gangwon association until October 2001 is up to 10 persons, and missing members from 1997 is up to 18 persons, suspension of business is up to 4 persons. in aspect of transference from 1990, transfer-in is up to 21 persons and transfer-out is up to 16 persons.

* Key words : dental technician, dental laboratory.

I. 서 론

협회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회원들이 협력하여 설립하고 유지하는 회 또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여러 사람이나 단체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임으로 정의되어 있으며(국어사전, 19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갖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협회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김영희 등, 2001).

이에 근거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1965년 8월 21일 창립총회를 준비하여 1966년 7월 25일 보사부 제755호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로

설립인가를 받아 발족하게 되었다(대한치과기공사협회 홈페이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치과기공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 및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협회정관 제4조), 회원친목과 복지증진· 회원 보수교육· 치과기공 업무와 치과기공에 대한 조사연구와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협회정관 제5조).

위와 같이 협회에서는 치과 기보 발행과 학회지 발간, 보수 교육 및 학술집담회, 홈페이지 개설 및 개편 등의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지식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협회산하 16개 시·도지부 중 독립된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서울·충남·경북·대구·부산 5곳에 불과 하며, 회원 등록상황은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는 서울회 인원이 1,260명으로 서울회 홈페이지에는 1,356명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협회와 각 지부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회의 경우 2001년도 회원의 협회비납부율은 28%로 회원들의 협조가 미비하였으며, 2001년 10월말까지 협회 가입인원은 총 4,984명이었으나(치과기보, 231호) 2001년 12월 31일에는 4,882명으로(협회 홈페이지) 2개월 사이에 수치상 10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혁(2000)의 연구에서 치과기공사 자격증 취득자 중 협회가입자는 36.3%(99년10월31일 까지)에 불과하며 협회 가입자 중 보수교육 이수자의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최운재(1997)의 연구에서 치기공과 재학 시절에 장래성이 없어 전과를 생각해 본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52.7%에 달했으며, 김연수(1997)는 치기공과 재학생들이 졸업 후 치과기공사의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으며 직업에 대해 크게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하였다. 아울러 김연수 등(1999)은 치기공과 입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입학했으나 졸업을 앞둔 3학년들은 대학생활에 높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하였다.

매년 대학입시에서 치기공과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고득점 수험생들이 1,400여명이 입학하고 있으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 후 타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낮은 입회율을 보이는 현상은 앞으로 협회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실로 인해 16,000여명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중 약 30% 정도만 치과기공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상당 수 치과기공소에서는 인력수급의 불균형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권순석(1998)은 치과기공사들이 직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고 했으며, 최운재(1998)는 치과기공사 대부분이 학력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느껴서 타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용철 외(2000)는 우리 나라 치과기공사들은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폭로되는 수준이 높아 건강 위험요인이 높다고 했으며, 최운재(2000)는 작업환경에서 소음, 분진, 가스등에 영향을 받아 대다수가 직업병을 염려하였고, 권은자 외(2002)는 치과기공사들 자신들의 업무 불만족과 많은 근무시간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근무자들 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 과다한 업무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치과기공계를 떠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보다 좋은 시설과 작업환경을 갖춘 치과기공소 및 종합병원으로 이직하려는 현실을 치과기공계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치기공과 졸업자들의 대다수가 서울 등 대도시로 취업을 원하는 현상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지역별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치과기공사회(이하 강원회로 칭함)를 대상으로 강원회의 연혁과 회원의 전·출입 상황 및 행방불명된 회원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강원회의 기초자

료 정리에 도움을 주며, 강원도내 치과기공소의 개·폐업실태와 인력현황 및 인력부족 분야 등을 조사함으로써 강원도내 치과기공소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우선 협회의 정관 제2장 제9조(권리)에 의거하여 현 강원회 회장님께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강원회의 내부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강원회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및 회원들을 연구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강원회의 자료를 강원회 인준 연도부터 조사·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조사대상 자료는 내부자료 미비로 인하여 조사하지 못하였고, 조사 연도를 1990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내용은 강원회의 전입·전출회원 현황과 보수교육 면제자 및 행방불명된 회원현황, 연도별 보수교육 날짜 및 장소, 참여인원 수, 치과기공소의 개·폐업 실태 등을 선행조사 하였으며, 선행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내 개설된 총 29개 치과기공소 중에서 조사에 참여한 28개 치과기공소 소장님에게 각 치과기공소의 개설연도·인원현황·주력분야·거래처 수·고가 기자재 보유 현황·인력부족 분야 등을 조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강원회의 임원진 구성 및 연혁

강원도 치과기공사회는 1984년도에 대한치과기공사회협회의 인준을 받아, 제11대 회장을 시작으로 2001년 제18대 회장까지 8회에 걸친 임원진 개편이 있었다.

강원회의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3명), 총무, 학술, 재무, 기공, 정보통신, 산학협력 이사 각각 1명, 감사(2명)와 고문(2명), 명예회장(1명), 대표자회(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회 임원진의 임기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는 2년으로 운영되었으나, 제15대 임원진 부터는 3년으로 연장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강원회 역대 회장 및 재임기간

연 번	회	회 장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제11대	박 용 하	1984년 11월 ~ 1986년 10월	2년
2	제12대	김 덕 일	1986년 11월 ~ 1988년 10월	2년
3	제13대	장 상 호	1988년 11월 ~ 1990년 10월	2년
4	제14대	장 상 호	1990년 11월 ~ 1992년 10월	2년
5	제15대	윤 재 혁	1992년 11월 ~ 1995년 10월	3년
6	제16대	최 경 화	1995년 11월 ~ 1998년 10월	3년
7	제17대	장 상 호	1998년 11월 ~ 2001년 10월	3년
8	제18대	윤 봉 기	2001년 11월 ~ 2004년 10월	3년

2. 강원회의 보수교육 현황.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조사된 강원회의 연도별 보수교육 현황은 <표. 2>와 같다.

1992년 이후 강원회 대표자는 12명에서 27명으로, 일반회원은 32명에서 83명으로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수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1992년을 제외하고는 대표자들의 참여율이 일반회원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표자의 경우 1997년 전반기와 2000년 후반기에 전원 참석한 경우(100%)가 있었으며, 일반회원은 1998년 전반기에 95.5%의 참여율을 보인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참여율이 낮은 연도를 살펴보면 대표자는 1996년 후반기 보수교육에 61.1%, 일반회원은 47.1%로 1993년 전반기 보수교육이었다.

강원회 전체회원의 보수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경우는 47.9%의 참여율을 보인 1994년 후반기 보수교육이었으며, 가장 높은 경우는 92.0%의 참여율을 보인 1998년 전반기 보수교육으로 나타났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20회에 걸쳐 시행된 강원회 보수교육 참여율은 70%~80%사이가 8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표 2> 강원회의 보수교육 현황

(1992~2001)

년도	회 원 수			날 짜		장 소	참가자(참여율)			비 고
	대표자	일 반	계				대표자	일 반	계(≒%)	
1992	12	32	44	전	5.9	동해	9(75.0)	26(81.3)	35(79.5)	
				후	11.7	강릉	8(66.7)	25(78.1)	33(75.0)	
1993	12	51	63	전	4.17	속초콘도	10(83.3)	24(47.1)	34(54.0)	
				후	10.23	강릉	11(91.7)	20(39.2)	31(49.2)	
1994	17	54	71	전	4.23	원주관광호텔	12(70.6)	31(57.4)	43(60.6)	
				후	10.		14(82.4)	20(37.0)	34(47.9)	
1995	19	68	87	전	5.13	속초대명콘도	14(73.7)	36(52.9)	50(57.5)	
				후	10.21	강릉	15(78.9)	35(51.5)	50(57.5)	
1996	18	50	68	전	5.18	대명콘도	13(72.2)	35(70.0)	48(70.6)	
				후	10.26	그린피아호텔	11(61.1)	28(56.0)	39(57.4)	
1997	18	64	82	전	4.19	대명콘도	18(100)	47(73.4)	65(79.3)	
				후	11.1	경포비치호텔	16(88.9)	58(90.6)	74(90.2)	
1998	21	66	87	전	5.16	경포비치호텔	17(81.0)	63(95.5)	80(92.0)	
				후	10.24	경포비치호텔	18(85.7)	49(74.2)	67(77.0)	
1999	24	66	90	전	4.17	설악파크호텔	17(70.8)	53(80.3)	70(77.8)	
				후	10.23	설악파크호텔	18(75.0)	42(63.6)	60(66.7)	
2000	24	66	90	전	4.29	현대성우리조트	18(75.0)	51(77.3)	69(76.7)	
				후	10.21	설악파크호텔	24(100)	45(68.2)	69(76.7)	
2001	27	83	110	전	4.21	설악현대콘도	23(85.2)	46(55.4)	69(62.7)	
				후	10.27	망상그랜드호텔	23(85.2)	48(57.8)	71(64.5)	

3. 강원도 치과기공소의 현황

강원도 소재 치과기공소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 치과기공사 협회에 등록된 대표자는 총 1,442명이었으며 이 중 강원회에 등록한 대표자는 28명이었으나, 2002년 3월 현재 강원회에 등록된 치과기공소는 9개의 시와 군·읍에 총 29개(미등록 1개 포함)로 2001년 보다 1개 치과기공소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릉시가 7개(≒24.1%)로 가장 많았으며, 원주시에 5개(≒17.2%), 삼척시와 속초시에 각각 4개(≒13.8%), 춘

천시에 3개(≒10.3%), 동해시와 태백시에 각각 2개(≒6.9%), 양양군과 영월읍에 각각 1개(≒3.4%)로 조사됐다.

폐업된 치과기공소는 2001년 원주(성신),속초(동우),동해(금강) 등 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도 이후에 5개소의 치과기공소가 명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내 치과기공소 중 최초로 개설된 곳은 1980년 5월 2일자로 개설된 강릉시의 영동 치과기공소이며, 신규 치과기공소는 2002년 1월 1일에 개설된 강릉의 울곡 치과기공소로 조사됐다.

<표 3> 강원회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현황

(2001.10월 현재)

번호	위 치(개설비율)	치과기공소명	개 설 연 도	명 의 변 경	비 고
1	강릉시 (≒24.1%)	뉴	1997. 9. 7		
2		강릉	1989. 5. 27		
3		영동	1980. 5. 2		
4		삼일	1994. 10. 1	2000. 1. 25	
5		심미	2000. 4. 5		
6		정밀	2001. 9. 20		
7		울곡	2002. 1. 1		미등록
8	동해시 (≒6.9%)	동해	1982. 3. 1		
9		관동	1999. 7. 5	2001. 11. 4	
10	삼척시 (≒13.8%)	삼척	1993. 11.		
11		원	1997.	2000. 11. 15	
12		강원			
13	속초시 (≒13.8%)	신원	2000. 11. 18		
14		속초	1988. 4. 1		
15		아트	1996. 6.	1998. 12. 20	
16		피닉스	1998. 4.		
17	양양군(≒3.4%)	필	1997. 4. 28		
18		바른	1995. 6. 10	1998. 11	
19	원주시 (≒17.2)	영서	1995. 5. 28		
20		청아			
21		해성	1999. 3. 15		
22		신	2000. 9. 1		
23		아카데미	2000. 10. 4		
24	영월읍(≒3.4%)	영월		2001. 12	
25	춘천시 (≒10.3%)	강원	1980. 7. 2		
26		그린	1994. 7.	2000. 5. 9	
27		예	1996. 6.		
28	태백시 (≒6.9%)	심미	2000. 8. 10		
29		황지	1987. 1. 1		

4. 강원도내 치과기공소 운영실태

강원도내 개설된 총 29개 치과기공소 중 조사에 참여한 28개 치과기공소의 운영실태는 <표 4>와 같다.

치과기공소 근무인원은 최소 1명~최대 10명으로 나타났으며, 23개 치과기공소(≒82.1%)에서 근무인원이 5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소의 주력 업무는 Porcelain 과 Crown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Denture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치과기공소는 2곳

(≒7.1%)으로 나타나 Denture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기공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 수는 10개 이상(▲로 표시)과 10개 이하(▽로 표시)로 거래하는 치과기공소의 수가 거의 비슷하였으며, Milling 등의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기공소는 16개(≒57.1%)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인력이 부족한 치과기공소가 16개(≒57.1%)로 나타났으며, Denture분야에서 인력부족인 치과기공소가 6개(≒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강원도내 치과기공소 운영실태

(2002. 3 현재)

장 소	근무인원	주 업무분야	거래처 수(10개기준)	고가장비 보유 현황	인력부족 분야
춘천	3	General	▲		Denture
강릉	10	Por. & Cr.	▲	Empress, Milling	
동해	4	General	▽		Cr. & Denture
태백	1	General	▽		Denture
속초	1	Por.	▽		
강릉	6	General	▲	Milling	All part
원주	2	General	▲		All Part
삼척	2	Por.	▲	Empress, Targis, Milling	
강릉	2	Por.	▲	Empress, Inceram	
강릉	6	Por., RPD Denture	▽	Milling,	Por. & Denture
속초	4	General	▽	Milling	Denture
춘천	5	General	▲	Milling, Empress, Acetal	All part
양양	5	General	▽	Empress, Milling	Polishing
원주	6	Por. & Cr.	▽	Empress, Milling	Cr.
삼척	4	Por. & Cr.	▲	Empress, Milling	Carving
속초	5	Por. & Cr.	▲	Milling,	
춘천	2	Por. & Cr.	▲		
영월	1	General	▽		
속초	1	General	▽		
원주	3	Por. & Cr.	▲	Empress	
동해	4	Por. & Cr. Denture	▽		Por.
강릉	3	Por., Milling, Implant	▲	Milling, Perform	Por.
태백	4	Por. & Cr.	▽	Milling	
원주	2	Por. & Cr., RPD	▲		Por. & Cr.
원주	6	Por. & Cr.	▲	Milling, Ivo-cap system	
삼척	2	Por. & Cr.	▲		Denture
강릉	3	Crown	▲	Zeiser	Por.(build up)
강릉	1	Cr. & Por.	▽		All part

5. 강원회 전입·전출자현황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원회 전입·전출자 현황은 <표 5>와 같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총 회원 수는 4,882명(대표:1,442명, 일반:3,440명)이었으며, 이 중 강원회는 101명(= 2.07%, 대표:28명, 일반:73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 10월까지 강원회에 등록된 보수교육 면제자의 경우 가사종사자와 60세 이상, 대학관계자등 총10명이었으며, 1997년 이후 행방불명 처리된 회원이 18명, 권리 정지된 회원이 4명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강원회에 전입자는 21명, 전출자16

명으로 조사 됐다. 전입자의 경우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에는 전입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자의 경우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999년 이후에는 전출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자의 전 소속회는 서울회 8명, 대구회 4명, 경기회와 경북회 각각 2명, 전북회 1명, 미확인 4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출자의 현 소속회는 서울회 10명, 경기회 2명, 부산회·광주회·전북회·충남회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표 5> 강원회 일반회원 전입·전출자 현황

(1990년 이후)

구 분	연 번	일 자	전소속	현소속	구 분	연 번	일 자	전소속	현소속
전	1	90. 9	대구	춘천	전	1	91. 10	원주	경기
	2	91. 7	서울	강릉		2	92. 2	군북무	서울
	3	93. 12	경기	강원		3	92. 2		서울
	4	94. 8	서울	춘천		4	93. 3	원주	서울
	5	94. 10	서울	강릉		5	93. 5		부산
	6	94. 10	대구	원주		6	93. 6		서울
	7	95. 3	서울	거진		7	93. 12	철원	경기
	8	95. 7	서울	속초		8	94. 2	삼척	광주
	9	95. 10	대구	거진		9	94. 3	삼척	서울
	10	96. 5	대구	속초		10	94. 3	군북무	서울
업	11	97. 4	서울	양구	출	11	94. 7	춘천	서울
	12	97. 10	전북	양양		12	95. 5	강원	서울
	13	98. 4	서울	영월		13	95. 6	강원	서울
	14	98. 6	경북	삼척		14	96. 9	강원	서울
	15	98. 7	경북	원주		15	96. 12	강원	전북
	16	98. 7		원주		16	99. 4	인제	충남
	17	99. 2		원주					
	18	99. 4		원주					
	19	99. 4		강릉					
	20	99. 4		삼척					
21	2001. 9	서울	속초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산하 강원회를 대상으로 강원회의 연혁과 1990년 이후 강원회의 회원들의 전·출입 상황 및 행방불명된 회원의 현황조사, 연도별 보수교육 참여율 등과 강원도내 28개의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개·폐업실태와 거래처 수, 인력현황 및 인력부족 분야 등을 조사하여 강원도내 치과기공소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원회는 1984년에 제11대를 시작으로 창설되어 2001년 제18대 까지 8회의 임원진 개편이 이루어졌다. 강원회 임원진은 회장 외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5년부터 3년간의 임기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회 대표자와 일반회원은 점차 증가되었으며, 연도별 보수교육에서 대표자들의 참여율이 일반회원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회 전체회원의 보수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47.9%이었으며, 가장 높은 경우는 92.0%로 나타났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20회에 걸쳐 시행된 강원회 보수교육 참여율은 70%~80%사이가 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2002년 3월까지 강원회에 등록된 치과기공소는 9개의 시와 군·읍에 총 29개로 나타났다.

개설위치는 강릉시가 7개(≒24.1%)로 가장 많았으며, 원주시에 5개(≒17.2%), 삼척시와 속초시

에 각각 4개(≒13.8%), 춘천시에 3개(≒10.3%), 동해시와 태백시에 각각 2개(≒6.9), 양양군과 영월읍에 각각 1개(≒3.4%)로 조사됐다.

4. 강원도내 치과기공소 근무인원은 최소 1명~최대 10명으로 나타났으며, 23개 치과기공소(≒82.1%)에서 근무인원이 5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소의 주력 업무는 Porcelain과 Crown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Milling 등의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기공소는 16개(≒57.1%)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인력이 부족한 치과기공소가 16개(≒57.1%)로 나타났으며, Denture분야에서 인력부족을 나타낸 치과기공소가 6개(≒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2001년 12월 31일까지 강원회 회원수는 101명(대표:28명, 일반:73명)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10월까지 강원회 보수교육 면제자는 10명이었으며, 1997년 이후 행방불명 처리된 회원이 18명, 권리정지된 회원이 4명이었고, 1990년 이후 강원회에 전입자는 21명, 전출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본 연구를 시행하면서 강원회의 자료 및 협회와 각 지부회의 자료를 참조하던 중 방대한 자료를 연구기간 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타 지부와 협회에서도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협회와 각 지부회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기에 협회 및 각 지부회의 회원관리와 자료정리 및 일반회원들의 불만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매월 협회에 보고되는 각 지부회의 매월 사업실적, 회원 변동사항과 기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매월 각 지부에서 보고되는 업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협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치과기보의 회원동정 등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정리하여 협회 및 각 지부회의 회원 수 파악과 이동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각 지부회 산하 구회에서는 매월 모임을 통해 각 지역 내 치과기공소의 인력이동 및 이직현황, 인력부족 분야, 치과기공소 개·폐업실태 조사 등을 더욱 활성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회원현황파악과 자료정리에 정확성을 더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현재 협회 및 지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일반회원들의 불만사항(임금, 작업환경, 시간의 수당, 4대 보험가입, 불법 치과기공물, 무자격자 취업 등)을 접수·관리하는 (가칭)고충처리 위원회 협회 내 신설하거나 법제위원회나 기공위원회의 업무로 추가하여 일반회원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종합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시에만 주어지는 보수교육 평점 취득방법을 일반회원들이 자비를 들여 참여하고 있는 일반 학회 및 학술세미나 등을 협회에서 검토를 하여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함으로써 일반회원들의 다양한 보수교육 평점 취득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 문헌

- 권순석. 치과기공사의 이직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사학회지, Vol.20, No.1, 66. 1998.
- 권은자, 김지환. 치과기공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Vol.23, No.2, 113~117. 2002.
- 김연수. 한국 치기공과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치과기공사학회지, Vol.19, No.1, 131~148. 1997.
- 김연수 외 3인. 치기공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치과기공사학회지, Vol.21, No.1, 188~204. 1999.
- 김영희 외 6인. 의료관계법규, 대학교육문화원, 81. 2001.
- 김웅철, 이세훈.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신체자각 증상과 직업관련 건강위험요인, 대한치과기공사학회지, Vol.22, No.1, 94~112. 2000.
- 문제혁. 치과기공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I), 대한치과기공사학회지, Vol.22, No.1, 188~200. 2000.
- 최운재. 한국 치과기공사들의 전문대학 치기공과 교육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 연구, 대한치과기공사학회지, Vol.19, No.1, 68. 1997.
- 최운재. 한국 치과기공사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연구, 대한치과기공사학회지, Vol.20, No.1, 68. 1998.
- 최운재. 치과기공사들의 건강관리 실태 및 인식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치과기공사학회지, Vol.22, No.1, 118~130. 2000.
- 동아국어사전. 동아출판사, 2262. 1994.
- 치과기보. "해마다 회원수가 줄어요", 제231호